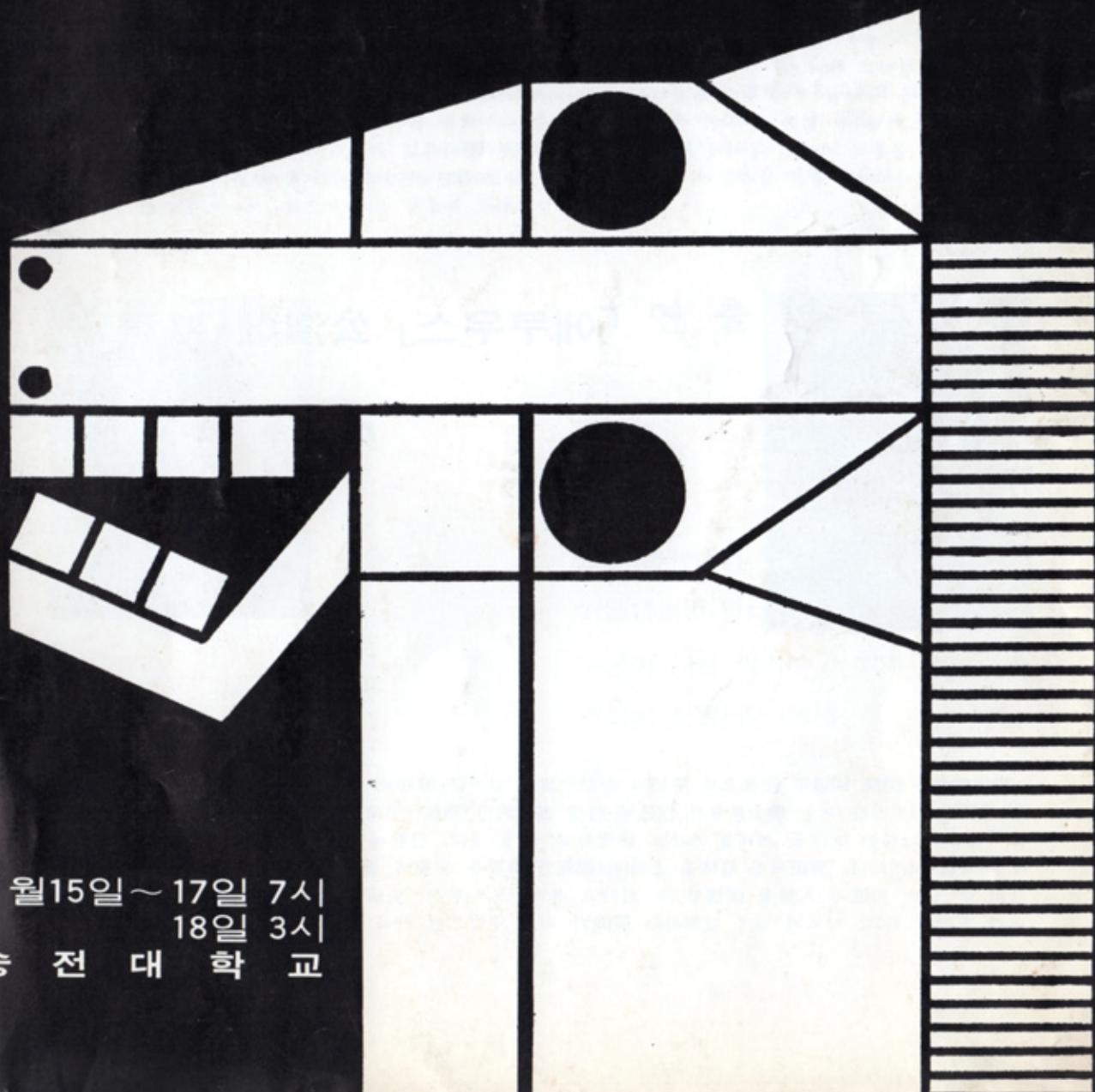


개교80주년기념 숭대극회 제16회 정기공연

EQUUS

피 터 · 쉐 퍼
신 정 정 옥
백 영 영 식
김

작
역
기
연
출



6월 15일 ~ 17일 7시
18일 3시
숭전대학교



격려사

총장 고 범서

날로 특징을 더해가는 중대극회가 영국 현대극의 완숙한 경지에 이른 “에쿠우스”를 공연하게 된 의의는 크다고 본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인간조건을 충격적으로 분해하는 피터·쉐퍼의 사상 또한 어떤 중요성을 제시한다고 본다.

이번 작품을 통하여 우리 젊은 중전인은 또 하나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 또한 지성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 마련한 조촐한 무대는 아무런 허물없이 우리 중전인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자리인 동시에 우리 현대인의 자리인 것이다.

이번 공연이 부디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젊은 중전인의 보람된 순간이 되고 중전사의 빛나는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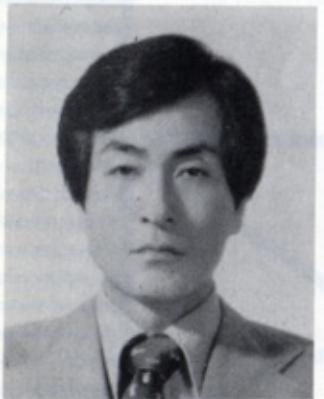
기획의 글

극회장 백정식

規格化된 한 개 部屬品의 存在價值밖에 없는 차라리 돌아어야 할 멍든 世代. 땅의 것; 하늘의 것 모두를 資失해버린 凄切한 絶望感.

自我마저 찾을 수 없는 撒抵한 無關心 속에 鏑濁하게 울려오는 空虛한 言語의 不協和音. 맑은 물을 먹고 사는 콩나물보다는 더러운 연못 속의 연꽃이고 싶다면 어느 少年의 孤聲. 정녕 行爲 그 自體가 目적이 되는 곳에 비로소 行爲의 自由가 있고, 純粹한 情熱이 샘솟는 것이라.

이제는 망설임의 沉默 속에서 여러분을 맞으련다. 그동안 애써 준 극회원과 여러 스승님, 아울러 物心兩面으로 協助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感謝드린다.



「에쿠우스」公演에 부쳐

指導教授 김준민

崇大劇会가開校 80週年 記念으로 第16回 定期公演을 갖게끔 協助해 준 校當局의 聲援도 聲援이려니와 아직은 어리게만 看는 劇會員들의 作品에 対한 献身的인 热意—學業에도 疏忽히 할 수 없는 学生으로서 「에쿠우스」라는 大作을 저네들 스스로 研究하고, 線을 긋고, 行動에 옮기는 過程—는 대견스럽다 못해 차라리 애찬하다. 演劇이란 媒體를 통하여 探究한 真理를 學業에 聯關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創意力を 기를 수 있고, 向進된 人格을 圖謀할 수 있다고 본다. 모쪼록 이 公演이 좋은 成果를 거두어 젊은이들에게 보람이 되고, 이로써 더욱 發展하는 契機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연출말

김영덕

파는 時代에서 무엇이 죽고 있다.

기듭나려면 만나야 하는가?

누군가 지금 끊기우고 있네.

조용히 사람타는 냄새,

흠.

산띠.....

산띠.....

산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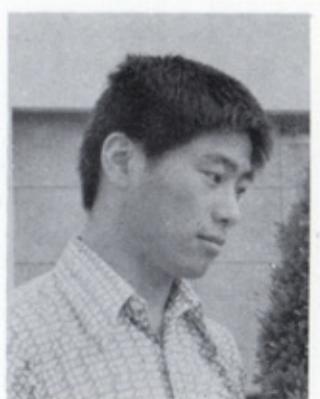
마틴 · 다이사트

안 흥 순



알 런 · 스 트 랑

김 영 덕



프랑크 · 스 트 랑

정 재 호

Cast



해 리 · 달 턴

이 시 종



네 제 트

한 태 육



간 호 원

이 해 안

Staff

기획 / 백정식
연출 / 김영덕
진행 / 김기열
무감 / 이용식
조연출 / 최연수
제작 / 문철주
조명 / 최연수
섭외 / 김연수
안무 / 박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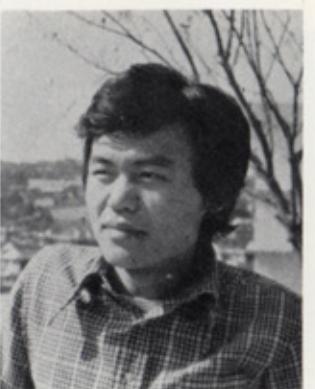
김기열



이용식



최연옥



문철주



최순식



김연수

公演作品研究

— 未來의 진한 연극을 위해서 —

우리가 戲曲 〈에쿠우스〉를 연극의 材料로 삼은 것은 虛心坦懷한 일이다. 우선 우리에게 연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사람과 만나야 하는가를 우리의 작은 손으로 깨우쳐 일어나기 위해서였다. 공연되어야 할 戲曲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고 해서 上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녹술은 이 時代와 正直하고 謙虛하게 마주치는契機를 절감했던 때문이다. 우리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재료들이 잘 녹아 스밀 수 있는 空間을 탐색하였다. 텅비어 있는 곳이면 좋았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에 만남을 具體化하고 그 場所를 열고 싶어 안달해왔다.

〈에쿠우스〉는 한갓 流行의 물거품이거나 혹은 임상병리학을 위한 〈사이코·드라마〉는 아니다. 회곡작가가 소재와 주제를 현대의 특징적 위기의식이나 공통적 불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연극이 一般世界를 向해서 投與되어지기를 작정한 것은 아니었다. 무릇 그림을 舞台에서 行해진 일련의 伝統的 樣式이라고 하는 연극들은 어떠한 회곡을 무대화 시키든지 그것을 観照시켜 對象化 하려 한다. 이 時代에 들어있는 각 個體들은 스스로가 文明에 대한 被害意識조차도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양, 짐짓 강건너 불로 본다든지 할 때에 연극은 하나의 因襲的文化體系에 安遊하려는 사치도구로 전락되기에 얼마나 안성마춤인가.

이렇듯 便易的인 事態에서는 팔고 사기에 눈이 어두워지고, 연극이 장사나 하는 걸로 둔갑하면 이내 비굴한 노예근성이 쉬이 따라붙어 연극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다. 연극이 이러하게 卽物의인 것이기 까지는 時代가 막히 사람이 세계로 부터 위협당하고 소외되는 현상과 대응되는 체계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세파〉는 미상불 言語에 대한 신뢰감은 실로 방대하기까지 하며 아주 품평하다. 하필이면 재료를 言語로 창조적 선택을 한전 무얼까. 오로지 文學精神의 〈리얼리티〉이거나 스스로의 〈메시지〉에 탄복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극장에 대한 깊은 敬畏心에서였다. 어찌보면 그의 이웃나라 사람 〈Artaud〉가 “직접적으로 精神을 통하여 느끼고 경험한 古代의 민중적 上演과 일치하고자”하는 〈드라마트루기〉를 생각케 하는 것이다. 그 역시 〈에쿠우스〉 미국 공연시 기쁨을 울어야 했던 착한 사람이었던 거다. 적어도 극장은 内的世界의 形而上学의으로 고려되어진 인간을 재검토하는 곳이라는 〈아르또의〉 진술이 또 귀기울이게 한다.

인간의 자기 소외현상은 인간이 세계속에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다이사트〉는 고민과 불안 속에서 자기 위기의식까지 느끼면서 급기야는 공포의 악몽을 토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이사트〉는 이 연극의 主管者로, 만남을 맺어주는 샤만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직업의사로, 청년기의 권태스런 중년신사로, 불임증으로 허약한 남편으로 또는 남모르는 悔悟의 로맨스로 고민하는 한 사내로, 회랑文化에 대해 정열을 가진 理想主義者の 향수를 간직한 疑古代人으로, 또는 거듭 태어난 자식을 가진 새 아버지로 각 사태에 따라 体现되어진다.

이윽고 그는 연극에서 만남을 이루어주는 中間者の 기능을 수행한다. 자기 다른 상황을 책임있게 처리하는 작가의 깊은 애정에서 태어난 거듭난 者로서 서른 다섯 장면을 —— 제약된 환경에서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에게 부딪치는 각 장면의 變移나 변화는 그에게 하나의 도전이며 시련이다. 알런과 처음 만난 후 그는 직업의사로서 초월적 의지를 희망한다. 〈샤만〉으로서의 그는 한 미성년자의 成年式 —— 通過祭儀를 치뤄주기 위해 샤만으로서 않는다. 악몽 —— 古代회랑의 희생제의를 지내는 神官으로서의 〈Trauma的 경향〉을 꿈꾼 얘기로 順依하여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때 관객은 受動的인 연기자의 소임을 맡을 수 있다. 이 거룩한 의식에서 잔혹을 증거하는 者로서 이 희생제의를 목도하는 것이다.

〈다이사트〉는 가끔 관객에게 직접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연극에서 유일한 특권을 가진 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사연극(Epicdrama)의 異化효과(Verfremdungseffekte)를 채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알런〉과 세계와의 분별을 해소한다. 오히려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있어서의 存在性을 知覺케 한다. 은폐된 〈알런〉의 時空間을 열어 놓는다. 열려지는 상황에 부딪힌 〈알런〉은 관객과 부끄럽게 만나는 것이다. 〈다이사트〉는 일반세계의 바깥에서는 作爲的 存在 —— 정신과의사이기 前에 이미 연극에 内屬하여 더불어 있음을 자각하는 매개적 존재이다.

〈알런〉은 이미 内面的 同化를 유발시키기에는 너무나 단혀진 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다. 즉, 그는 법정에서 소란 피운 —— 기물파손 죄목으로 기소된 범죄자이며 가정법원 판사, 헤스터의 영감을 충동질한 정신질환자이다. 상품 광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더욱 더 통화되기는 난감한 철부지 소년이다. 오히려 이화효과를 내는 인물이다. 그러나 작가는 〈다이사트〉에 의해 이러한 것을 초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알런에게 지각의 場을 賦與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알런의 병상차트는 생생히 재현되어지고 同時의 상황으로 처리된다. 의사에 의해 그는 日常의 관념의 시공간을 뛰어넘고 한다. 그런데 〈알런〉의 原型의 心性構造는 진료하는 〈다이사트〉에 의해 난도질 당하지만 모든 〈이니시에이션〉이

각 연기자들은 스스로 일상적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자체가 아니라 자기이면서(일상적 관객도 가능한 次元을 점거한다.) 자기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意味賦與者로서 知覺양태를 갖는다. 소위 <스타니슬라브스키 씨스템>은 “제 4의 벽”으로 오늘날 만남의 은폐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연기자는 심리적 사실주의에 굳어지는 대왕물로 轉移된 채이다.

그러나 <에쿠우스>의 연기자는 “봄과 同時に 보여지고 보여짐과 동시에 본다.” 이것은 일반세계에서의 존재자와 <Theatricality>의 同時性(Synchronie 혹은 Juxtaposition)인 그러한 兩義的인 弁証法의 知覺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연극이 진한 연극이기 위해서는 극장은 흐르지도 않고 멎지도 않고 극장에서 열리고 펼쳐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 관객은 지각에 있어서 연극과 바로 만나는 것이지, 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의 일반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극장에서는 現은 實이어야 한다. 이때에 일반세계의 俗性은 우주가 불투명하고 不動하고 無言한 것이어서 전해줄 공통된 지각양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독되어야 할 어떤 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연극을 인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그안에서 연극을 마침내 열므로써 우주와 일체감을 불러 일으킬 때, 의식의 상태는 바로 지각에 있는 것이다.

無我의 경지가 그것이다.

<알런>이 다는 馬는 역시 우주의 상징 기능을 수행한다. 현실에서의 대상적 유한의 존재로서 명백한 馬의 형상은 “장소”를 열지 않는 物象에 불과하며 자기완결된 개체로서 더 이상 자기의 대상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닫혀진 ‘승마대회의 馬’<에쿠이테이션(Equitation)>의 馬로 규정된다. 그것은 도의시된 형태의 물건이나 허상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연기자의 신체의 배개성에 의하여 연극은 직접 경험의 장소가 되고 그 지각의 자각성에서 관객은 참으로 “열린 우주”와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馬의 연기자의 신체는 객관적인 존재의 복사가 아니다. 馬는 연극과 현실, 人과 馬, 聖과俗, 함께 지각되어 지면서 그들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한다. 끝 그들은 35개의 장면에 구조적 상관함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合一되는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馬는 상징기능을 완벽히 해낸다. 상징은 그들은 한데 뒤섞어 혼합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한데 모으고 있는 것이다. 에쿠우스는 결국 事象의 복합성 및 사건의 여러 사태를 단일한 상황으로 놓축시켜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한다.

<샤만><다이사트>는 알런의 심성구조를 여러개의장을 통해 응집시켰다가 이 연극의 頂點<엑스타시>에서 폭발시킨다. 그것은 신성모독체계로서 이룩된다. 이것이야말로 逆의合一이다. <알런>에게의 神이란 초롱한 눈속의 밝은 웃음이기도 하며 백만 어른들 속에 도사린 죽음의 神이기도 하다. 정상의 神은 불가피한 한계상황에 서성이는 인간을 단번에 살해 시키는 神이며 <다이사트>는 그신을 시중드는 <샤만>인 것이다. 죽음의 神에게 반항하는 <알런>의 개성은 잊과 의사의 메스에 의해 거세 당하고 말며 보다 소중한 건강의 神에게 알몸의 <알런>을 바치는 神생체계이다.

실존으로서의 알런이 아무리 반항해봤자 그는 일반 사회 체계의 하부구조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극 바깥에서 구조주의적 관점을 고수한다면 신성한 神생체계와 신성모독의 절대치는 같다. 여기에서는 연극은 일반세계의 외식이고 일반세계는 연극적 무의식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이때에 성스러운 馬는 눈이 젤리고 <알런> 스스로도 눈을 찌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열려지는 연극의 出口를 통해 존재 양태의 전미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예수가 神性을 스스로 파괴하고 인간 실현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힌 것처럼 기독교의 <Incarnation>은 알런의 극단적 상황과 대응 체계를 이룬다. 그것은 알런의 자기神性 파괴이면서 동시에 <에쿠우스>의 자기完続性 実現이다. <Equus>는 현대 인간의 리얼한 상황의 상징적 体现이다. 馬는 古代의 죽은 神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새롭게 이룩되고 있는 <메카니즘>을 열린채로 상징된 것이다. 물론 馬는 존재자로서의 存在를 뛰어 넘어야 하는 초월적 의미를 지닌다. 말이 가지는 상징 기능의 의미는 인간들의 여러 다른 수준의 상이한 원초적 삶의 존재론적 同質性에 대한 원리를 체득하게 해준다.

즉, 「馬의 리듬」으로 「함께 묶어」삶의 존재론적 동질성에 대한 원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그때에 인간은 않았던 神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관객의 삶의 리듬의 의미를 거듭 반추하는 것이다. 물질 문명에 소외된 현대 疑文明人の 삶을 궁정적으로 반추하며 궁극적 물음의 가능성을 탐진하는 것이다.

마침내 관객이 관객임을 뛰어넘고 연기가 연기자임을 뛰어넘고 연기자가 관객을 서로 만나는 그곳에서 연극은 우주에 투명한채 소리없이 열리는 것이다.

(충대극회 기획실)

大光寫眞植字社

서울特別市 中區乙支路三街 二九六의四

青苑 빌딩 三〇二号

TEL : 21-2279 · 27-4709

◎營業種目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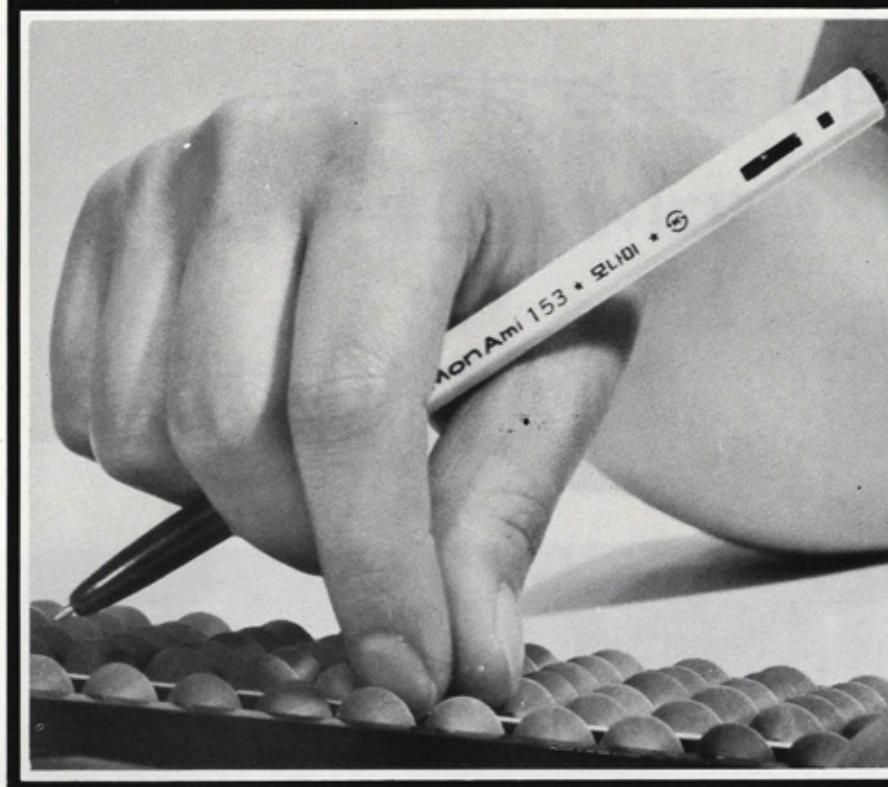
寫眞植字 · 各種圖案

編輯 · 企劃 · 高級印刷



公演年譜

回	年 譜	作 品 名	演 出
1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2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 作	이태주
3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4	1970년 5 : 15	"聖者의 샘물" by John Millington Syege	한영제
5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샤무엘·베케트 作	김양기
6回 演劇祭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달목 삽화 * 윤조병 作 담배해독에 뛰해서 * 안톤 채홉 작 황금단지(로마극) * 푸라우터스 작 고도를 기다리며 * 샤무엘·베케트 작	정종화 주정서 한영제 유근배 차현재
		처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작	차현재
		생일파티 * H. 펀터 作	한영제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뒤렌마트 作	고봉인
		방 H. 펀터 作 기도(소극장) F. 아라발 作	차현재
		정의의 사람들(전 5막) A. 까뮈 作	정종화
		악마와 톰 W. Arving 作 (신입생환영)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3	1975년 10 : 29, 30, 31	비디만파 방화범 Max. Frish	안홍순
14	1976년 3 : 17, 18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 (신입생환영)	김득남
	1976년 6 : 1, 3, 4	인티뷰 장·클로드·반·이탈리 作	김득남
15	1976년 10 : 25, 26, 27, 28	밸 장·클로드·반·이탈리 作	김영덕
16	1977년 3 : 16, 17, 18	출발 윤대성 作	안홍순



볼펜은 역시,
모나미!

과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값이 싸면서도 실용적인것을 원합니다. 모나미볼펜과 싸인펜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으뜸입니다. 모나미볼펜의 여러 자매 품종에는 당신에게 호감을 살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상표만 확인해 주십시오.

모나미
볼펜
싸인펜

株式会社 モナ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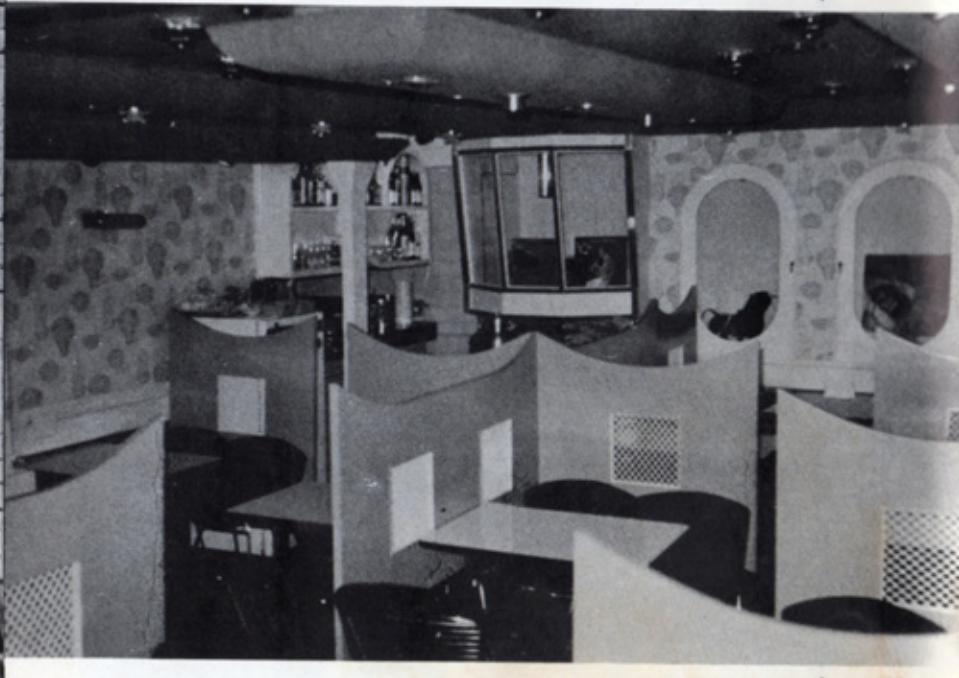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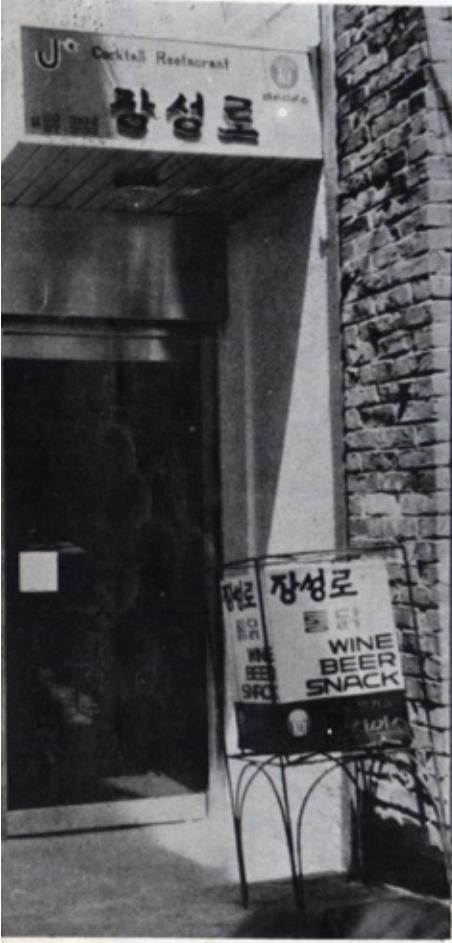


신비의 물
건강을 실는衛生飲料
최정 미네랄워터

이제
손쉽고 편안하게
미네랄·워터를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증정
회사 최정 미네랄워터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로 4 가 33 의 1
TEL. 26-6723/29-1977
販 售: 檀 順 星 院 國 際 賣 百 廉 朝 韓 有 限 公 司
주 소: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령리 181
TEL. 2-2860/6500

고전음악이 흐르는 격조높은
분위기에 당신을 모십니다.



통닭 · 경양식
Whisky & Wine
음료 · Beer

Cocktail Restaurant

장 성 로

상도동입구 빼스정류소앞 67-3132, 69-3132

